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앉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르쳤다
때늦은 의원(醫員)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最後)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나)

㉢어두운 방 안엔 /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규칙적 음보울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를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접속어를 활용하여 시상의 반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2.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유를 활용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라는 상황을 제시했다.
- ② ㉡: 통곡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족을 잃은 애상적 정서를 부각했다.
- ③ ㉢: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배경이 되는 공간인 방 안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 ④ ㉣: 서로 대비되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주었던 인상을 강조했다.
- ⑤ ㉤: 색채의 대비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버지께 불효한 것에 대한 회한을 표출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용악은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북방 유이민의 비애를 잘 대변한 시인으로 꼽힌다. 그는 함경북도 경성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는 큰 슬픔을 겪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면서 소금 장사를 하는 것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갔다. 이런 점들은 (가)를 감상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아버지가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을 맞이한 것은 북방 유이민의 비극적인 죽음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라는 시구를 보면 시인의 아버지가 어렵사리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이렇다 할 유언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아무일만의 파선'이나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이라는 시구들은 시인의 아버지가 타국 땅을 넘나들며 소금 장사를 했던 일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깔았고'라는 시구에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라 이루지 못했을 젊은 날의 꿈이 영원히 소멸된 것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이 반영되어 있겠군.
 - ⑤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라는 시구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시인의 큰 슬픔이 직설적으로 표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4. (나)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한 회의에서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상물 전체를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각의 장면에 들어갈 내용을 구분하는 데는 시구에 사용된 시제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 ② '과거' 장면에서는 열병을 앓는 어린아이의 머리맡에서 손주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간호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
 - ③ 회상의 매개와 관련된 시의 발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려면 '현재' 장면에서 눈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물의 이마를 비춘 화면을 '과거' 장면과의 연결 고리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
 - ④ '현재' 장면에서 장년의 인물이 서 있는 공간은 겨울을 맞은 도시의 거리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현재' 장면에서는 그 옛날 아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출타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장년인 인물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에서는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한 중세적 제국과 기독교의 이념이 쇠락하자, 영토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 정치'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동안 국제 정치학에서는 근대 국제 정치의 시작 시점을, 신교와 구교 세력 간의 30년 전쟁(1618~1648)을 종식시킨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유럽을 지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가 고유한 영토를 지닌 개별 국가들과 동등해지면서 주권 국가를 국제 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하는 근대 국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유럽 제패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계속되었으므로, 유럽 내에서 상호 공존의 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이 확립되는 주권 국가 확립 시기나, 유럽의 주권 국가들이 비유럽 국가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근대 국제 정치의 시작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 지역에서 근대 국제 정치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로 분석된다. ㉠첫 번째 단계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중세의 제국권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단계이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이념과 왕조적인 인적 관계에 기반해 범유럽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를 끝으로 더 이상 시도되지 못했다. 하지만 왕조를 이루는 결혼, 정복, 상속 등의 기제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왕조와 주권 국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 국가나 복합 제국들이 1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종교에 기반한 중세의 제국에서 벗어나 고유한 영토에 기초한 정치체에 대한 사고가 나타나면서 영토 내에서 최고의 주권적 권위를 정립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 시기 마키아벨리, 보댕, 홉스는 대내적 주권 확립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대외적으로 독립되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주권 국가가 성립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주권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범유럽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30년 전쟁 이후에도 고유한 영토를 가진 특정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여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이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쟁과 식민지 개척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한편 이러한 확장 정책을 조정해 유럽 내에서 안정을 찾고 규범에 의한 국제 정치적 정상 상태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등의 국제법 학자들은 주권의 개념, 전쟁, 정복 등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였고, 이러한 규범에 입각해 상대 국가를 정당한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주권 국가 간의 공존의 길을 찾고 초국가적 유럽 연방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대내적 주권이 점차 왕의 절대적 주권 개념에서 국민의 주권 개념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국민 주권 사상가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사명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주권이 국가 단위를 초월한 왕조적 주권에서 영토적 주권을 거쳐 국민 주권의 단계로 이행했다. 국민 주권으로의 이행은 비록 개별 국가의 내부적 사건이었지만 점차 국제적 의미를 ①지니게 되었다. 유럽에서 제국을 건설하려던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영토 정복과 전쟁을 통해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국가의 국민들을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온전히 통합해야만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 나폴레옹은 범유럽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과 민주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결합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유럽의 세력 배분 구조에서 한 국가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중세의 제국 질서가 약화되면서 초기 근대 유럽에서 주권을 획득한 단위는 제국-국가의 혼성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주권 국가는 유럽 내에서 제국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비유럽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였다. 제국을 비롯해 도시 국가, 도시 연합과 같은 단위들이 국가라는 정치체로 재정비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단위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있었고, 주권 국가들 간에도 여전히 상호 정복과 영향력 행사의 제국 논리가 작동하였다. 즉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공존하면서 양자는 서로를 정복하기 위한 제국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팽창해 나갔던 것이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는 제국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단위들을 말살하는 일원적 지배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유럽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제국 간의 관계에서 국가들의 온전한 주권과 주권적 평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가 통치했던 독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권 국가를 단위로 제국의 목표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결국 근대 국제 정치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국, 도시 국가, 도시 연합과 같은 국가 이외의 다른 단위들은 형식적으로 사라졌지만, ①국가가 제국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했던 속성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의지: 루소의 국가론에 나타나는 중심 개념.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공적 주체로서의 국민 일반의 의지를 이룸.

5. 윗글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의 주권 국가가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②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대내적 주권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인가?
- ④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 실패가 국제 정치적으로 가진 함의는 무엇인가?

⑤ 근대 국제 정치 시대의 시작 시점에 대한 견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종교적 이념에 기반해 범유럽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었다.
- ② ㉡: 왕조가 존속했지만 고유한 영토를 기초로 한 대내적 주권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③ ㉢: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국가 간 공존의 길을 찾고 유럽 연방을 창설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④ ㉣: 주권 국가의 욕구를 조절하여 대외적 확장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였다.
- ⑤ ㉣: 국민 주권의 원칙이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국제 정치의 시작 시점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유럽에서는 중세와 근대에 걸쳐 ㉢을 이루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 ③ 유럽의 중세는 ㉠에 비해 ㉢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근대 국제 정치에서는 ㉠과 ㉢이 혼재되어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 ⑤ ㉠은 국민 주권을, ㉢은 종교적, 왕조적 주권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8. ㉠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국가가 자국의 정치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와 연대하여 주권 국가의 보편적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특정 국가가 고유한 정치적 이념을 포기하고 범국가적인 국제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 ⑤ 특정 국가가 협상을 통해 주변 국가를 설득하여 자국의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9.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홉스**와 **푸펜도르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홉스는 개인의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자연 상태가 곧 전쟁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보존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개인은 생존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자신의 주권을 양도해 대신할 절대 권력, 즉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 투쟁하는 주권 국가들을 규제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 즉 전쟁 상태라고 규정했다. 한편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안전을 해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을 혼자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유약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대내적 최고성을 갖는 주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 국가들 간의 행동을 이성에 기반한 국제 규범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를 평등하다고 상정했다.

- ① 홉스는 푸펜도르프와 달리 주권 국가 간의 관계는 규제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였군.
- ② 푸펜도르프는 홉스와 달리 주권 국가 간의 전쟁이나 정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군.
- ③ 푸펜도르프는 홉스와 달리 주권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제 규범과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였군.
- ④ 홉스와 푸펜도르프는 모두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주권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군.
- ⑤ 홉스와 푸펜도르프는 모두 인간의 사회 구성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결과라고 보았군.

1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주머니 속에 항상 약을 지니고 다녔다.
- ② 그녀는 나에게 대한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 ③ 석탑은 옛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우뚝 서 있었다.
- ④ 어머니께서는 그 시절의 추억을 가슴속에 지니고 사셨다.
- ⑤ 아저씨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자식(子息) 스이 하눌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孝)여라 <제1수>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눈화시니
 인간(人間)의 귀(貴)호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잡 주고 못 어들 거손 이뿐인가 호노라 <제4수>

벗을 사피오더 **처음의 삼가(三加)호야**
 날도곤 나으 니로 곱히여 사피여라
 종시(終始) 신의(信義)를 덕히여 **구이경지(久而敬之)***호여라
 <제5수>
 - 김상용, 「오륜가」

*오조도 반포: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버이에게 먹이를 먹여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함을 이르는 말.
 *구이경지: 오래도록 공경함.

(나)
 내 말씀 광언이나 저 화상을 구경허게
 남촌 한량(閑良) **개풍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야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재넘어
 시체(時體) 따라 의관허고 남의 눈만 위허것다
 (중략)

명조상*을 떠세허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 보아 진봉*허기 재업을 까블리고
 허욕으로 장사허기 남의 빛이 태산이라
 내 무식은 생각 앓고 어진 사람 미워허기
 후할 데는 박하야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데는 후하야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허니*
 반복소인(反覆小人) 허기진다
 내 몸에 이(利)할 대로 남의 말을 탄(憚)치 앓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一家)는 불목(不睦)하며
 병날 노릇 모다 하고 인삼 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도 하야 돈 주정을 무진 허네
 부모 조상 돈망*허여 계집 자식 재물 수탐(搜探)
 일가친척 구박허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의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用錢如水)*상하탱석(上下撐石)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債客)이요 윤의(倫義)는 내 몰라라
 입 구멍이 제일이라 돈 날 노릇 하여 보세
 전답 팔아 변돈 주기 중을 팔아 월수 주기

구목(丘木) 배어 장사하기 서책 팔아 빚 주기와
 동네 상놈 부역이요 먼 데 사람 행악이며
 잡아오라 꺼물려라 자장격지(自將擊之)* 몽둥이질
 전당 잡고 세간 뺏기 계집 문서 중 삼기와
 사(私) 결박에 소 뺏기와 불호령에 술 뺏기와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인심하겠구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하는 소리로다

- 작자 미상, 「우부가」

*명조상: 이름난 조상.

*떠세히고: 재물이나 힘 따위를 내세워 쟁취하고 역지를 쓰고.

*염량: 세력의 성함과 쇠함.

*진봉: 물건을 임금에게 바침. 여기선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뜻.

*승기자를 염지허니: 재주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돈망: 까맣게 잊어버림. *경계관을 짚어지고: 시비를 가리기 좋아한다는 말.

*용전여수: 돈을 물처럼 흔하게 씀. *자장격지: 남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손수 함.

(다)

지난주, 우연히 창고 뒤쪽의 목재를 정리하다가 보았는데, 놀라워라, 잘린 버드나무 몸통에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어 있었다. 제법 무성했다. 토막 난 버드나무는 외진 데서 살려고 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도마뱀 꼬리가 눈앞에서 쭉쭉 자란다 한들 이보다 놀랐을까. 나무토막은 “비록 영문 없이 뿌리는 잃었지만 나, 결단코 죽지 않겠다오.”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런 외침보다, 푸르디푸른 잎을 어떻게 하면 햇살을 더 많이 받아 뻗칠 것인가, 오로지 내 할 일은 그뿐이라는 자세였다.

잘 말려서 겨울에 뽕감으로 쓰리라는 생각은 그 순간 사라져 버렸고, 악착같이 살겠다는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거기 몰두하게 되었다. 동강 난 몸체만 남았지만 싱싱하게 푸른 잎을 밀어 올린 버드나무의 생명력은 식물에게도 혼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급의 층위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잎이 특히 무성한 것들만 네 토막을 골라 마당 복판의 작은 우물에 일단 담가 두었다.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워 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 바다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다. 깨끗한 자개상도 벌써 다섯 개나 모아 뒀다.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소반도 있다.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 없다.

(중략)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뛰든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들을 손수 만드는, 바꿀 수 없는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별반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생산이라도 돈이 된다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은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매클루언이었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되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줬 올랐다면 싶으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 ③ 윤리적 준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고 있다.
- ④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제시하여 근심을 느끼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늘 삼킨 지친’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오조도 반포’를 통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갑 주고 못 어들 거손 이뿐’을 통해 우애가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처음의 삼가호야’를 통해 벗을 사귄 때 필요한 신중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구이경지’를 통해 벗과 오래 교제한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3. (나)의 개똥이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긴 하지만 스스로 체면을 손상하는 인물이다.
- ②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쓰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인물이다.
- ③ 덕망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인물이다.
- ④ 타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만 일가친척에 대해서는 매우 포용적인 인물이다.
- ⑤ 조상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상 덕을 보려는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이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설득적인 글에서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우선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는다. 또한 대상의 부정적 행위를 ㉡나열하거나 ㉢빚대는 방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추락시킨다. 동시에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 ① ㉡: (나)에서 개똥이를 가리킬 때 ‘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인물과 거리를 두어 그의 잘못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 (나)에서 ‘사 결박에 소 뺏기와 불호령에 솔 뺏기’는, 개똥이의 탐욕적인 행위를 나열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 (다)에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는, 무분별한 소비 행위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빚댄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 (나)에서 ‘사람마다 도적이요’는, 개똥이와 어울리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인용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 (다)에서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는, 현대인들의 낭비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군.

15. (다)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지구에 존재하는 자원을 사용할 권리는 인간에게만 있다.
- ② ㉡: 사람들은 자연이 본래부터 지닌 재생 능력을 믿고 있다.
- ③ ㉢: 사람들은 유한한 자연 자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 ④ ㉣: 자연은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진화한다.
- ⑤ ㉤: 생명력이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존중해야 한다.

[16~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상 기후 현상이나 미세 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원료가 수소(H₂)이다. 수소는 연소 이후에도 오염 물질이 생기지 않아 각종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 가스가 아닌 물(H₂O)을 배출한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장점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수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양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에 가장 많은 것이 수소이지만 지구의 대기에 존재하는 수소 비율은 매우 낮다. 수소는 매우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구는 이를 잡아 두기에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에서 수소를 얻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구의 표면에는 산소, 규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물이나 유기물 등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구 표면의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수소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을 분해해서 얻는 것이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활용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산화 나트륨(NaOH)과 같은 전해질을 물에 용해시켜 활용한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양(+)극과 음(-)극,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O₂)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순도가 높은 수

[A] 소를 얻을 수 있지만 분해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전기를 만들 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경우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광을 활용하여 물을 직접 분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니켈을 혼입한 산화 인듐(In₂O₃) 촉매를 사용하여 태양광으로 직접 물을 분해하는 시도가 성공하였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규모의 수소를 얻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아직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수소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증기 ㉠개질 반응을 활용하는 것이다. 수증기 개질 반응은 촉매의 존재하에 탄화수소와 수증기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 탄소(CO)를 합성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탄화수소 중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CH₄)을 활용한다. 우선 천연가스에서 메테인을 분리한 후, 메테인과 수증기의 개질 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얻는 것이다. 메테인과 수증기를 반응시키면 일산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수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메테인 대신 다른 물질을 개질 반응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생성되는 일산화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달라진다. 개질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난다. 따라서 주변의 온도를 높일수록 수월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장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750~1,000℃의 온도를 유지할 때 수소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반응 후에는 반응 전에 비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데, 압력이 너무 높으면 부피 증가가 어려워져 반응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 수소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수증기 개질 반응에서 생성된 일산화 탄소를 촉매의 존재하에 뜨거운 수증기를 더 반응시키면 일산화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 탄소(CO₂)가 되면서 수소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이동 반응이라고한다. 이동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개질 반응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일어나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반응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 350℃ 정도에서 반응시킨다. 이동 반응을 통해 수소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메테인을 활용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은 현재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고갈, 이산화 탄소의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의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얻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16.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소를 얻는 방법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② 수소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③ 수증기의 개질 반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하며 수소의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기존 에너지원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17. 윗글을 읽고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의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하겠군.
- ②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피가 증가할 수 있도록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겠군.
- ③ ㉠이 일어난 후 주변의 온도는 반응 전에 비해 떨어져 있겠군.
- ④ ㉡에서 온도가 350℃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응의 효율은 높아지지만 반응 속도가 감소하겠군.
- ⑤ ㉡에서 생성되는 혼합물에 ㉠의 과정을 반복하면 수소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겠군.

18.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과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 ② 메테인을 활용하여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수소는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좋다.
- ④ 수소 자동차는 다른 물질 없이 수소만을 활용하여 동력을 얻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⑤ 지구 표면상의 수소는 물이나 유기물 등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19. 윗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수소를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 석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와 같이 석탄(C)에 뜨거운 수증기(H₂O)를 반응시켜서 수소(H₂)를 제조하는 것이다.

$$C + H_2O \rightarrow CO + H_2$$

이 반응으로 생성된 혼합 가스를 수성 가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수소 함량은 메테인에서 수소를 얻을 때보다 적다. 수성 가스는 이동 반응에서 수소와 이산화 탄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일산화 탄소와 수소 기체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면 개질 반응의 역반응이 일어나 메테인을 만들 수 있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① 생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동일하다면 석탄보다 메테인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군.
- ② 메테인에 수증기를 반응시켰을 때와 석탄에 수증기를 반응시켰을 때 동일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생성되는군.
- ③ 석탄을 활용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활용할 때와는 달리 수증기가 아닌 물질을 석탄에 반응시키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소의 양이 적군.
- ④ 석탄을 활용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도 천연가스를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 반응을 통해 수소를 더 만들어 낼 수 있군.
- ⑤ 수성 가스로 메테인을 만들기 위해 개질 반응의 역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수소가 추가로 필요하겠군.

2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과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 ② 메테인을 활용하여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수소는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좋다.
- ④ 수소 자동차는 다른 물질 없이 수소만을 활용하여 동력을 얻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⑤ 지구 표면상의 수소는 물이나 유기물 등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21. [A]를 읽고 알 수 있는, 수소를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은 가장 쉽게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은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 ③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수소를 얻을 수 있다.
- ④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얻을 때는 전해질을 활용하여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한다.
- ⑤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얻는 방법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 친구는 아쉽게도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졌다.
- ② 그 사람은 남들에 비해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다.
- ③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떨어졌다.
- ④ 최근에 매일 운동을 했더니 운동화가 금방 떨어졌다.
- ⑤ 날씨가 줄곧 흐리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임인(壬寅, 기원후 42)년 3월 계육일(禊浴日)에 아홉 간(干)이 다스리는 땅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백성들이 모였다. 그 소리는 자신을, 하늘이 이곳의 임금으로 명한 존재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며 노래를 부르면 곧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했다.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좇아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얼마 안 되어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아 있었다. 그 줄의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으로 만든 상자가 싸여 있으므로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백배(百拜)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싸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책상위에 놓아두고 각기 흠어졌다. 이런 지 열두 시간이 지나, 그 이튿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상자를 여니 여섯 알은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흰칠했다. 이들을 평상 위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하례하면서 극진히 공경했다.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으로 [A] 은나라 천을(天乙)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나라 고조(高祖)와 같다. 눈썹이 팔자(八字)로 채색이 나는 것은 당나라 고조(高祖)와 같고,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된 것은 우나라 순(舜)과 같았다. 그가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首露) 혹은 수릉(首陵)이라고 했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이라고 하고 또 가야국(伽耶國)이라고도 하니, 이는 곧 여섯 가야 중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가서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그는 임시로 대궐을 세우게 하고 거처하면서 다만 질박하고 검소하니 지붕에 이은 이엉을 자르지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겨우 3척이었다.

즉위 2년 계묘(癸卯, 기원후 43)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 그러곤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沓坪)에 나가 사방의 산악을 바라보다가 좌우 사람을 돌아보고 말했다.

“이 땅은 협소하기가 여뀌 잎과 같지만 수려하고 기이하여 가위 십육 나한(羅漢)이 살 만한 곳이다.

더구나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그 셋에서 일곱을 이루니 일곱 성인(聖人)이 살 곳으로 가장 적합하다.

여기에 의탁하여 강토를 개척해서 마침내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1,500보 둘레의 성과 궁궐과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터를 마련한 뒤에 궁궐로 돌아왔다. 두루 나라 안의 장정과 공장(工匠)들을 불러 모아서 그 달 20일에 성 쌓는 일을 시작하여 3월 10일에 공사를 끝냈다. 그 궁궐과 옥사(屋舍)는 농사일에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하니 그해 10월에 비로소 시작해서 갑진(甲辰, 기원후 44)년 2월에 완성되었다. 좋은 날을 가려서 새 궁으로 옮겨 가 모든 정사를 다스리고 여러 일도 부지런히 보살폈다. / 이때 갑자기 완하국(玩夏國) 함달왕(含達王)의 부인이 아기를 배어 달이 차서 알을 낳으니, 그 알이 변해서 사람이 되어 이름을 ㉡탈해(脫解)라 했는데,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그는 키가 3척이요, 머리둘레가 1척이나 되었다.

그가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 하니 왕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를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 “그렇다면 술법으로 겨뤄 보겠소?”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새매로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이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본모양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원래 모양이 되었다. 이에 탈해가 엎드려 항복했다.

“내가 술법을 겨루는 마당에 있어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모두 성인(聖人)께서 저의 죽음을 원치 않는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툰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탈해는 문득 왕께 절하고 나가서 이웃 교외의 나루터에 이르

러 중국에서 온 배가 오가는 수로(水路)를 따라 떠났다. 왕은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鷄林)*의 땅 안으로 달아나므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기사(記事)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건무 24년 무신(戊申, 기원후 48)년 7월 27일에 구간 등이 조회할 때 말씀드렸다.

“대왕께서 강림(降臨)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구하지 못하셨으니 신들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여보내어 대왕의 짝이 되게 하겠습니다.” /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일진대,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

왕은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해서 경주(輕舟)*와 준마(駿馬)를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帖)으로 가게 했더니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빛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망산도에서 횃불을 올리니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오므로 신귀간은 이것을 바라보다가 대궐로 달려와서 왕께 아뢰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간 등을 보내서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갖추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곧 모시고 대궐로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말했다.

“나는 본래 너희들을 모르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유천간 등이 돌아가서 왕후의 말을 전달하니 왕은 옹계 여겨 유사(有司)*를 데리고 행차해서, 대궐 아래에서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산기슭에 장막을 쳐서 임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 작자 미상, 「김수로왕 신화」

*구간: 가야국 초기의 아홉 추장. *계림: '신라'의 다른 이름.

*경주: 가볍고 빠른 작은 배. *유사: 단체의 사무를 맡는 직무.

2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로는 대궐을 임시로 세우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구간들은 하늘로부터 땅까지 드리워진 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여러 사람들은 황금 알 여섯 개가 지닌 권위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다.
- ④ 알에서 나온 나머지 다섯 명은 다섯 가야를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⑤ 아도간은 자신이 여섯 명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신화에서 경쟁자는 주인공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로, 대개 주인공과 비슷한 조건을 지닌 경우가 많다. 즉 고귀한 혈통, 남다른 성장 과정, 비범한 능력을 지닌 우월한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자는 결국 주인공과의 경합에서 패하고 주인공의 영토에서 떠나게 된다. 그 결과 경쟁자는 주인공에게 힘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인물로 판명되고, 이를 통해 주인공의 신성성과 영웅성, 도덕성이 더욱 부각된다.

- ① ㉠이 경합 전에 ‘백성들’의 ‘편안’을 언급하고 ㉡이 경합 후에 ㉠에 대해 ‘어진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 데서, ㉠이 지닌 도덕성을 엿볼 수 있군.
- ② ㉡이 ‘왕위를 다툰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경합 전부터 ㉠보다 열위에 놓여 있는 ㉡의 특성이 드러나는군.
- ③ ㉠과 ㉡이 ‘술법’을 겨루는 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평범하지 않은 면모를 지닌 존재임이 증명되는군.
- ④ ㉠이 ‘하늘’의 명으로, ㉡이 ‘함달왕의 부인’에게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고귀한 혈통을 지녔음이 드러나는군.
- ⑤ ㉠과 ㉡이 모두 ‘알’의 형상에서 ‘사람’으로 변신하였다는 점을 통해, 이들이 모두 기이한 출생 과정을 거쳐 성장한 존재임을 알 수 있군.

2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건국 신화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가야의 건국 신화인 윗글에서도 당대의 사회 모습과 국가의 성립 과정,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윗글에서 신라의 신화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후대 사람들이 건국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 ① 왕이 서울의 궁궐을 공사하는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을 통해 가야가 농경을 중시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군.
- ② 왕이 등장하기 전에 땅을 다스린 사람들의 정체를 통해 가야는 부족 사회를 토대로 형성된 국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군.
- ③ 왕이 수도에 새 궁을 쌓으며 마련한 건물들의 용도를 통해 가야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사무가 분리된 정치 체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왕이 임시 궁전을 지어 놓고 왕후를 기다리게 된 이유를 통해 가야는 건국 초기 왕의 세력과 왕후의 세력 간 갈등으로 인해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왕과 탈해의 만남에 관한 기사를 신라의 것과 비교한 점을 통해 가야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기록하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과학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산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과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공 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인간은 타인이나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는 양상도 달라지면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 동일한 관점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휴먼’이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간의 신체에 기술 문명과 같은 영역을 더하여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담론으로, 기존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학 기술이 발전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휴머니즘을 탐색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휴머니즘은 이원론적 구분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을 정의하였다. 휴머니즘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 행위자이고,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이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동적인 대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선택에 대해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근대 이후 등장한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윤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통해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견해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 혹은 생각하는 능력은 육체적인 영역과는 구별되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간을 인간이 아닌 생명체나 존재와 구분 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반면에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이해하는 인간의 본질에 도전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경계를 탐색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인간’, ‘기계’,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 개념에 내재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공생을 시도한다. 포스

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녔지만, 주변 환경과 과학 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자율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율적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면서 함께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모든 형태의 생명체 및 과학 기술적 존재와 연결되어 교차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되는 예외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인간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생각도 부정한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 및 과학 기술적 존재와 상호 작용하며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인간과 관련된 세계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

유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이익을 함께 기뻐하는 이타적 인간형을 의미하는 '성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올바른 관계 맺음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곡 정제두에 의해 정립된 하곡학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 주는데, 하곡학에서는 유학 사상인 주자학과 양명학의 입장을 변용하여 올바른 관계 맺음을 주장한다. 주자학에서는 글을 통해 '예(禮)'라는 실천 양식을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예를 공부하고 실천하여 몸으로 익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올바른 관계 맺음에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을 우선시한다. 모든 행동과 실천의 주체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연스러운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곡학에서는 성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양명학에서 중시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하곡학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이나 행동을 절충하고 받아들이는 습합과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해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다. 마음은 원래 천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이치가 마음에 습합되어 있다. 따라서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은 마음속에 들어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선하다고 보고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 선한 정감*을 확충하여 선한 마음을 만들고자 했던 맹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이치를 습합하고 있는 마음을 통해 개인 간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곡학에서는 이 과정을 확충의 관계 맺음이라 하는데, 이때 확충은 사유이 침

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선한 정감으로 채우는 것과 채운 마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넓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확충의 관계 맺음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마음은 천하와 하나가 되는 단계에 이르고, 이를 통해 개인은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곡학에서는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만물이 한 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본래 지니고 있던 양지*를 길러냄으로써, 도덕적 시비를 판단하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양지를 길러 내면 만물의 존재 법칙인 진리를 얻음으로써 인간이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감응하며 만물이 한 몸처럼 되는 것이다. 감응은 각 존재들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올바른 관계 맺음'의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곡학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도덕성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더 우위에 두는 위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관계 맺음에 대해 확장된 의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감: 이성적인 사고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근거를 의미함.

*양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냄. 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지혜를 의미하고,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본바탕을 의미함.

26.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후 보인 학생의 반응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바라보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는 ㉠ _____ 를,
(나)는 ㉡ _____ 를 설명하고 있다.

<보 기>

- ㉠. 포스트휴머니즘과 휴머니즘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의 개념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에 주목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특징과 적용 사례가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 ㉢.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 ㉣. 하곡학이 유학을 대표하는 사상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 하곡학에서 인간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과 하곡학이 후대 성리학의 인간관이 발전하는 데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7. <보기>는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 단계에서 학생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곡학은 감응을 통해 각 존재와의 관계 맺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사이의 공생을 시도한다.
- ② 하곡학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존재보다 우위에 두는 위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개념에 내재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한다.
- ③ 하곡학은 모든 이치가 습합되어 있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 만물이 한 몸처럼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지향할 올바른 관계 맺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④ 두 글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조화로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⑤ 두 글은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맺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존재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28. (가)의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과 사람이 자동차 운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자율 주행은 인공 지능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람이 운영에 개입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레벨 4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 지능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얼마만큼 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인공 지능은 개발자들이 만들어 낸 정교한 알고리즘과, 운영에 관련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 의해 자율 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완벽하고도 성공적인 자율 주행에는 인공 지능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제공하는 사람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① 레벨 0~3의 자율 주행 상황에서 발휘되는 인공 지능의 자율성은 인간의 자율성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레벨 4의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필요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운영을 인공 지능과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대 과학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레벨에서 인간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진화하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인공 지능의 운영에 대해 인공 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률의 개정 필요성 규범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졌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9.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만물의 존재 법칙을 의미하는 양지를 깨달음으로써 만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인간은 마음에 침범하는 사욕을 마음속 이치를 바탕으로 막더라도 도덕적인 시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은 선한 정감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좁혀 나감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천하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인간은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해 도덕적 행동의 기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만물의 존재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인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진리를 획득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 진실하게 반응하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녀는 다양한 신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발을 취했다.
- ② 나는 지난주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제 휴식을 취했다.
- ③ 그는 엉덩이를 의자에 반만 붙인 채 당장에라도 일어설 자세를 취했다.
- ④ 아버지께서는 나의 직업 선택에 대하여 믿고 응원해 주시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 ⑤ 나는 동생에게 국어 공부를 가르쳐 주고 너무 피곤한 탓에 하루 종일 잠에 취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오던 ‘그’는 예정되지 않은 날 귀가하다 아파트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다.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를 만나 함께 놀이터에서 기다리게 된다.

갑자기 놀이터가 시끌땡땡해졌다. 아이들 한 떼거리가 몰려든 것이다. 계집애들이 재빨리 그네를 차지해 버리자 사내아이들은 미끄럼틀 쪽으로 우르르 밀려갔다. 지금까지 혼자서 그네에 매달려 있던 꼬마가 여자애들에게 슬며시 자리를 내주고는 그 옆의 시소로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약간 겁먹은 것 같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표정하며 인상이 조금은 낮익은 기분이어서 그는 은연중에 미소를 띠었다. 노인도 그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불쑥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니, 저 아 줌 보래이. 머스마가 우에 저렇기 숫기가 없을꼬? 맴 여린 거 하고, 꼭 니 어릴 때 걸다 카이!”

“제가 말입니까?”

그도 소리 내어 웃었다.

“하모. 영판 저랬다 아이가. 동네 아이들한테 치이 가주고 삼짝 밖을 잘 안 나갈라 캤디라. 죽은 니 할매가 마실 갈 때마둥 억지로 데불꼬 땡기고 그랬다 카이. 소핵교 당기면서부터 쪼매

씩 나아지던 거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맴돌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그는 잠시 회상하였다. 하지만 또렷하게 잡혀 나오는 기억은 없었다. 여름 장마철이면 잠풀이 무성하게 돌아나던 안마당이 잠시 떠올랐다. 가을이면 그곳은 타작마당이 되어 버렸다. 새벽부터 기세 좋게 돌아가곤 하던 탈곡기 소리를, 그는 어렴풋하게 환청으로 들었다. 언제쯤이던가, 아침에 일어나 뒤란으로 돌아가 보면, 감꽃이 지천으로 떨어져 땅바닥을 하얗게 뒤덮고 있던 때가? 여름 한철, 높다란 대청마루에 누워서 마음이 흠뻑 젖도록 귀 기울이곤하던 소나기 소리, 매양 코끝에 알싸하게 감겨들던 흠냄새…… 일테면, 삼짝 밖을 벗어나지 않고도 결코 지겹지 않았던 세계다. 그러나 지금은, 문밖에서 나는 좀 피곤하다, 짜증스럽다 하고, 그는 속으로 투덜댔다.

아내는 돌아왔을까? 잠긴 문에 비로소 생각이 미쳤다. 두 세계를 견고하게 차단하고 있는 저 철제의 문 — 그 문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난감하였다. 아버지만 아니라면 온 길을 되돌아가 버리고 싶어졌다. 그놈의 문을 따고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신통방통할 게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일어섰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일이었다. 그는 맥 풀린 걸음걸이로 공중전화부스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별반 기대도 없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따르릉,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또 그놈의 엉뚱한 기대감이 울컥 가슴을 치받았다. 굳이 따지자면, 상당한 시간을 죽인 셈이기는 하였다. 그새 아내가 귀가했을 수도 있다, 아니, 거의 확실히 귀가했을 것이다, 하고 그는 성급하게 단정하는 마음이 되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신호음만 계속 울리고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온 그는 깊은 곤혹감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방향을 잡아 휘적휘적 걷기 시작하였다. 어찌면 집 전화가 고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는 5층까지의 계단을 단숨에 올랐다. 그러고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참을 서있었다. 문은 잠긴 그대로였다. 손잡이에 걸어 둔 가방 역시 변함 없었다. 주인의 부재를, 그것은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어의 손잡이를 쥐고 가만히 비틀어 보았다. 완강한 저항감이 손바닥에 또렷이 전해져 왔다. 그는 얼른 손을 뺐다. 웬지 목덜미가 핫핫하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우스꽝스런 꼬락서니를 누군가가 훑쳐보고 있는 것만 같아 그는 황망히 돌아섰다.

(중략)

“여기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지요?”

매밀이 타올로 그곳을 문지르며 그가 물었다.

“상처라꼬?”

노인이 새삼 고개를 외로 꼬고 내려다보았다.

“어데, 그런 기 있나?”

“여기요. 제법 큰 흉터데요?”

“아, 이거 말이야?”

노인이 손으로 더듬더듬 흉터를 확인하더니 대꾸하였다.

“충 맞은 자국 아이가. 육니오 사변 때…….”

“이거가요?”

그는 반문하였다.

“전쟁 때 입은 상처는 이쪽 거잖아요?”

“어데?” / “여기요.”

그는 노인의 손을 끌어다가 겨드랑이끼의 ㉠흉터를 만져 보게 하였다.

“이게 바로 그 충상 자국이잖아요. 눈으로 봐도 알겠는데요, 스쳐 지나간 자리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그래 비나?”

[A]

노인의 대답이 어눌해졌다.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목소리였다. 기억을 더듬듯이 노인의 아둔한 손이 흉터를 의심스럽게 더듬어 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뚤름히 고개를 끄고 한참 생각해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역시 자신 없는 말투였다.

“니 말이 맞능 거 겠다. 까딱했으마 갈빗대가 몽창 나갈 뿐 했다꼬, 니 생모가 늘 그랬더라. 그눔어 불콩이 쪼매마 더 우에 됐으마 내사 지금 없지러…… 말도 마라, 그눔어 육니오…….”

“그래두 영감님은 괜찮시다.”

갑자기 옆에서 참견해 왔다. 타일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노인이었다. 아까부터 이쪽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달갑지 않은 화제 때문에 짐짓 외면해 왔으나 이제 비로소 구미가 당기는 얘깃거리를 만났다는 식이었다. 탕 속의 노인네 까지 참견할 눈치였다.

“동란 때 그만큼도 안 당한 사람이야 이 대한민국에 있겠소? 날 보시오. 사지 육신이야 멀쩡하지. 비록 쭈그렁바가지가 되긴 했수다만…… 흉측한 상처 같은 거야 없지. 그거이 뭘 대단할 거 있소? 내 말은, 겉으로 보지 않는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 그거지요.”

- 이동하, 「문 앞에서」

3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등장인물의 시선에 기대어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에는 인물의 행위와 관련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 있다.
- ④ [A]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B]에는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⑤ [A]는 한 인물의 내면 의식에, [B]는 인물의 언행에 주목하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이 장소보다 추상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공간에 경험과 가치가 더해지면 그 공간이 하나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누구와 어떤 시간을 가지는가에 따라 각기 전혀 다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일상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 아파트는 편리성을 지닌 하나의 거주 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아파트를 축소된 도시 생태를 표상하는 장소, 즉 기존 가족 관계가 해체된 곳, 소외와 인간관계의 단절이 있는 곳,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는 곳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소 속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아파트를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건물로만 생각하면, 아파트는 ‘그’에게 거주 시설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간이겠군.
- ② 열쇠가 있어 ‘그’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파트는 ‘그’에게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해 주는 공간이겠군.
- ③ 자신의 집에 왔지만 문밖에 방치된 듯한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아파트는 ‘그’에게 가족공동체가 해체된 듯한 경험을 하게 하는 장소이겠군.
- ④ ‘그’가 도어 손잡이를 잡은 후 그것으로부터 완강한 거부감을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아파트는 ‘그’에게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겠군.
- ⑤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와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파트는 ‘그’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겠군.

33.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아버지가 겪은 동란의 후유증이라면, ㉡은 당대인들이 지닌 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후대인의 공감을 의미한다.
- ② ㉠이 아버지가 살아온 굴곡진 삶의 흔적이라면, ㉡은 전쟁으로 육체적 상처를 입은 당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에 해당한다.
- ③ ㉠이 아버지가 도시 생활에서 겪은 고된 삶의 흔적이라면, ㉡은 전쟁의 후유증을 지닌 당대인들의 내면의 상처를 의미한다.
- ④ ㉠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입은 육체적 상처라면, ㉡은 전쟁을 체험한 당대인들이 지닌 정신적 상처를 형상화한 것에 해당한다.
- ⑤ ㉠이 아버지가 역사적 상황에서 입은 부상의 흔적이라면, ㉡은 전쟁을 경험한 당대인들이 도시적 일상에서 입은 내적 상흔을 나타낸다.

34.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며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허전함을 느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 과거 유년의 소중한 것들과 멀어지게 되지만, 그들의 충족되지 못한 허전함은 일상의 작은 틈들 사이에서 멀어진 것들을 소환해 내고 있었다. 작중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그’는 나에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처럼 느껴졌다.

- ① 꼬마가 여자애들에게 그녀를 내주던 것과 같은 배려심
- ② 구미가 당기는 타인의 대화에 참견하려는, 탕 속 노인의 적극성
- ③ 노인이 놀이터에서 꼬마를 바라보며 웃음 짓던 것 같은 한가로움
- ④ 할머니가 치맛자락을 맴도는 손자를 감싸 주었던 것 같은 따뜻한 사랑
- ⑤ 어렴풋한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도록 돕던, 타일 바닥에 누운 노인의 포용심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성명	수험 번호
----	-------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 지난주에 함께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여러분은 도로의 표지판에 있는 숫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숫자는 왜 있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역시 예상대로 아시는 분이 없네요. 표지판의 숫자는 노선 번호로 여기에는 여러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도시를 잇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용 국도인 고속 국도의 노선 번호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해선은 노선 번호가 10번인데, 이 번호만으로도 남해선이 동서로 뻗어 있으며, 간선 노선축 중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속 국도에 노선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국토 교통부의 ‘고속 국도 등 도로 노선 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에 정해져 있어, 도로의 노선 번호만 알면 이렇게 도로의 방향, 규모, 위치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속 국도의 경우 노선 번호를 붙이는 원칙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속 국도 노선의 일부를 나타낸 그림으로 기호 안에 있는 숫자는 노선 번호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남북 방향의 도로에는 홀수 번호를, 동서 방향의 도로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북 방향의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노선 번호의 숫자가 커지고, 동서 방향의 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노선 번호의 숫자가 커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자릿수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국도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간선 노선축에는 두 자리 숫자가 부여되는데 남북 방향은 끝자리에 5번이, 동서 방향은 끝자리에 0번이 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보조 노선축에도 두 자리 숫자를 붙이지만 끝자리가 다릅니다. 보조 노선축이란 간선 노선축에서 분기하여 주요 도시, 산업 단지, 항만과 공항 등을 연결하며 2개 시·도 내외를 통과하는 도로로 남북 방향은 끝자리에 1·3·7·9번이, 동서 방향은 끝자리에 2·4·6·8번이 부여됩니다. 한편, 지선에는 세 자리 숫자가 부여되는데 앞 두 자리는 관련되는 주간선 노선 또는 보조 간선 노선의 번호를 그대로 쓰고, 셋째 자리에는 남북 방향이 1·3·5·7번이, 동서 방향이 2·4·6·8번이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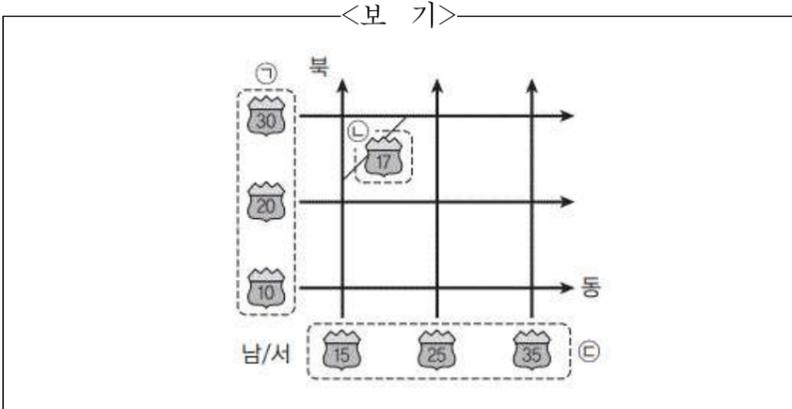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남해선은 전남 영암과 부산을 잇는 간선 노선축인 만큼 우선 두 자리 숫자에 끝자리가 0번이 붙고, 동서 방향의 간선 노선축 중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1번

을 넣어 10번이 된 것입니다. 보조 노선축은 연결된 간선 노선축의 번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방향인 평택 화성선의 경우 15번인 서해안선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끝자리에 7을 붙여서 17번이 됩니다. 151번은 세 자리이므로 서해안선에서 갈라져 나온 남북 방향의 지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 대도시나 광역권의 외곽 지역을 순환하는 도로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순환 노선축은 세 자리로 하되 맨 앞에는 해당 도로가 있는 지역의 옛 우편 번호 첫째 자리를 사용하고 그 뒤에는 00번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전 남부 순환선의 경우 대전의 옛 우편 번호 첫째 자리인 3을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00번을 붙여 노선 번호가 300번이 되는 것입니다. 고속 국도 노선 번호뿐만 아니라 노선명을 붙이는 기준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고속 국도 노선 번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고 질문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물음)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메모한 것이다. 강연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간선 노선축이 남북 방향인 경우 노선 번호의 끝자리가 0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을 활용하여, 평택 화성선이 서해안선의 오른쪽에 있는 보조 노선축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과 ㉡을 활용하여, 간선 노선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노선 번호의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과 ㉣을 활용하여, 도로의 규모에 비례하여 노선 번호의 숫자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과 ㉣을 활용하여, 도로의 종류에 따라 노선 번호의 짝수와 홀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7.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청자 1: 가장 남쪽에 있는 남해선의 노선 번호가 왜 '10'번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알겠네. 그리고 부산의 옛 우편 번호의 첫째 자리가 '6'이니까 부산 외곽 순환선의 노선 번호는 '600'번이겠군. 그런데 지선이 어떤 도로인지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점은 아쉬웠어.
- 청자 2: 서해안선 바로 옆 오른쪽에 위치한 간선 노선축이 호남선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 그렇다면 호남선은 남북 방향을 연결하는 간선 노선축이기 때문에 끝자리에 '5'를 쓰고, 또 그 앞 자리의 숫자가 서해안선보다는 커져야 하니까 호남선의 노선 번호는 '25'번이겠군.
- 청자 3: 고속 국도의 표지판에 붙어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회를 통해 알게 되니 유익하군.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노선 번호가 잘 홍보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쉽네.

-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게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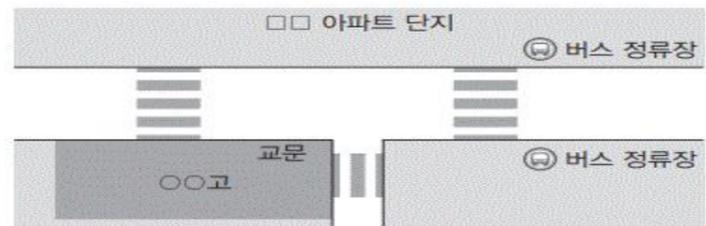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⑤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하굣길 버스 이용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버스 정류장이 생겨 우리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염려가 큼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안전을 내신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부장 교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약도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약도를 화면에 제시한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부근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쪽 정류장으로 가는 (화면의 해당 지점을 가리키며) 이 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길이 넓고 교통량도 제법 되다 보니 학생들이 보행자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해당 지점을 가리키며) 이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하굣길에 교문을 나서면서 버스가 도착하는 것이 보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버스를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차에 부딪힐 뻔하고 주행 중이던 차들이 학생들을 피하려고 다른 차선으로 급하게 변경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학생부장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 교사: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은 자주 실시했는데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한 적이 별로 없어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단 횡단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겠습니다.

최 교사: 교통질서와 관련된 학생의 의식도 원인이겠지만 버스 배차 간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앞 정류장에 오는 버스 노선이 하나뿐이라 한 대를 놓치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투덜거리는 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배차 간격이 20분이나 되더군요.

박 교사: 배차 간격이 줄어서 버스가 더 자주 오더라도 빨리 버스에 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학생들은 버스가 오는 걸 보는 순간 무작정 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버스 정류장 위치가 학생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안전 의식, 버스 배차 간격, 버스 정류장 위치를 학생들의 하굣길 버스 이용과 관련한 안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A] **김 교사:**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버스 배차 간격이나 정류장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보다는 학교 쪽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도록 교문 오른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교문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최 선생님은 어떠세요?

최 교사: 안전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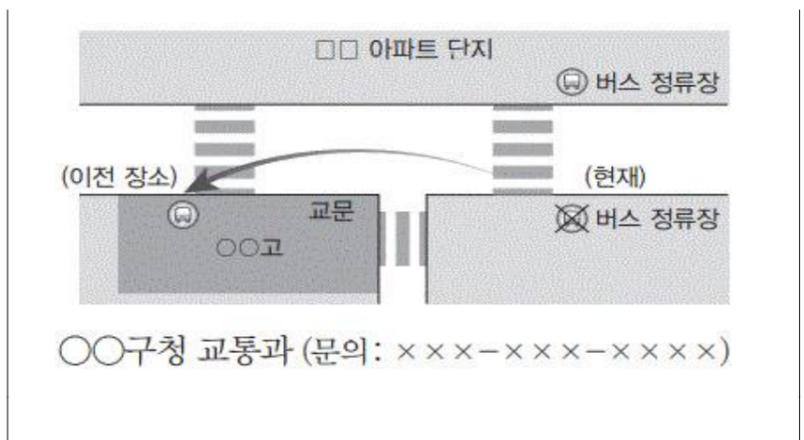
사회자: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 교사: 정류장 이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류장을 옮길 경우 우리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인근 주민들 중에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들의 협조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버스 정류장 이전 안내

○○고 옆(□□아파트 단지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이전합니다. ○○고 학생들과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해 버스 정류장이 새로 들어선 이래 ㉠문제점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니 △△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일시: 20××년 ×월 1일 첫차 운행부터
- 이전 장소: 서편으로 75m 이전(○○고 교문 동편 45m 지점에서 교문 서편 30m 지점으로)



38. (가)에 드러난 ‘사회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의할 안전에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참여자들이 발언해야 할 내용을 지정하고 있다.
- ③ 발언할 사람을 지정하여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 ④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⑤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39.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교사’는 ‘최 교사’가 제시한 의견이 논의에서 다루는 문제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군.
- ② ‘김 교사’는 ‘최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③ ‘김 교사’는 ‘박 교사’의 의견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문제 발생의 원인을 다시 주지시키고 있군.
- ④ ‘김 교사’는 ‘박 교사’가 제시한 문제 발생의 원인에 동의하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기대 효과와 함께 언급하고 있군.
- ⑤ ‘김 교사’는 ‘최 교사’와 ‘박 교사’의 발언을 종합하여 두 의견을 절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

40. (가)와 (나)의 ‘약도’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 ②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는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에, (나)에서는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데에, (나)에서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설명 대상과 관련하여 변화될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작성자가 초고를 점검한 결과이다. <보기>에 따라 ㉠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수정해야겠어. ○○ 고등학교와 □□아파트에서 보내온 건의문을 보면 ○○ 고등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정류장이 현재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적어야겠어.

- 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낮아진다는 문제점
- ② 정류장의 위치가 학생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
- ③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버스 배차 간격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
- ④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점
- ⑤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앞의 도로임에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이 많다는 문제점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과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글을 쓴다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이 인쇄 매체나 디지털 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 ㉠
- 디지털 매체 읽기의 좋은 점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디지털 매체 읽기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 중 일부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
-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어느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0년에는 44.7%, 2012년에는 78.4%, 2019년에는 91.5%에 이른다고 한다. 디지털 매체 읽기는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제시된 정보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읽기 활동을 방해하고 ㉣읽는 목적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 (중략) ...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디지털 매체 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쇄 매체의 역사성을 근거로 인쇄 매체 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다) 학생의 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매체 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쇄 매체가 책, 신문, 잡지 등 활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미디어를 의미한다면, 디지털 매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뿐만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 회선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를 의미한다. 디지털 매체 읽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절대적일 정도로 현재의 우리 삶이 디지털 매체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디지털 매체 읽기 능력의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쇄 매체 읽기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매체 읽기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후천적 성취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읽기 능력이다. 독자는 종이에 쓰인 글자의 독해를 통해 글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추론을 통해 글에 직접 담기지 않은 내용을 생성해 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는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대신에 인쇄 매체가 제공해 주는 이러한 깊이 있는 사고를 빼앗아 간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는 선형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른바 하이퍼링크라 불리는 정보 제시 방식 때문이다. 이 방식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그물망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배열되면 독자들은 경로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 우편의 수신함을 확인하려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수신함은 확인하지 않은 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신상 잡기에 관한 내용을 한참 동안 찾아다니는 등 자유로운 읽기방식은 자칫 독자에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독자가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과정에서 읽기 목적을 망각하고 인터넷 공간을 떠돌 수 있는 것이다.

[A]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웹 서핑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거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자 우편이나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매체 읽기의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기 행위란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쇄 매체 읽기의 능력이 향상되면 디지털 매체 읽기의 능력은 저절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우리의 읽기 활동에서 디지털 매체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것은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인쇄 매체가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은 수천 년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우리 독서 환경은 인쇄 매체 읽기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매체 읽기보다는 인쇄 매체 읽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42.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의 개념을 예와 함께 제시하며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디지털 매체의 읽기 방식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 ③ ㉢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주류가 된 디지털 매체 읽기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편리하다는 측면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해, 디지털 매체의 정보 제시 방식을 제시하며 디지털 매체 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⑤ ㉤을 고려해, 디지털 매체 읽기 방식과 인쇄 매체 읽기 방식이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여 디지털 매체 읽기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43.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근거로 하여, 디지털 매체 읽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상화된 우리의 삶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를 구체화하여, 디지털 매체에서는 하이퍼링크라는 정보 제시 방법이 독자들의 읽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③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인쇄 매체 읽기는 디지털 매체 읽기와 달리 논리적인 추론 등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④ ㉤의 사례를 찾아, 전자 우편의 수신함을 확인하는 작업이 때로는 읽기의 방향성을 잃게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그동안 이룩해 놓은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 읽기보다는 인쇄 매체 읽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44.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의 목적은 공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각국의 교육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는 데 있다. 이 평가에서 새롭게 디지털 매체 읽기 평가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인쇄 매체 읽기와 디지털 매체 읽기 간에는 읽기의 과정에 매체에 따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① 디지털 매체 읽기의 능력 향상이 오히려 인쇄 매체 읽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②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인쇄 매체 읽기가 아니라 디지털 매체 읽기이므로 디지털 매체 읽기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 ③ 인쇄 매체의 읽기 능력이 디지털 매체의 읽기 능력에 비해 깊은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매체마다 고유한 읽기 방식이 있으므로 인쇄 매체 읽기의 능력 향상과 함께 디지털 매체 읽기의 능력 향상에 노력 기울여야 한다.
- ⑤ 디지털 매체 읽기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새롭게 도입될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인쇄 매체 읽기보다는 디지털 매체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5. <자료>를 활용하여 (다)를 보완하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습관화되면 비판적 읽기에 어려움이 생겨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추가해야겠군.

<자 료>

[자료 1]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가짜 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짜 뉴스를 본 미디어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복수 응답)

[자료 2] 연구 보고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매체 읽기에서는 ‘훑어보기’가 표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이 방식은 F자형 또는 지그재그로 텍스트를 재빨리 훑어 맥락을 파악한 후 결론으로 직행하는 형태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거나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기억이나 학습에 있어서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가해진 자극에 의해 뇌 내에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들성들성 건너뛰며 읽는 것이 습관화되면 향후 비판적 읽기와 같은 깊이 있는 읽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읽기 방식은 글쓰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 ① [자료 1]: 과반수의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본 적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인쇄 매체보다는 디지털 매체에서 읽었다는 점을 들어, 인쇄 매체보다 디지털 매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문제점을 추가해야겠군.
- ② [자료 2]: 디지털 매체 읽기는 텍스트를 F자형 또는 지그재그로 읽은 후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디지털 매체 읽기에서는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추가해야겠군.
- ③ [자료 1]과 [자료 2]: 디지털 매체 읽기에서는 ‘훑어보기’를 표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디지털 매체 읽기가 글 전체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게 하여 가짜 뉴스에 쉽게 속게 되는 문제점을 추가해야겠군.
- ④ [자료 2]와 [자료 3]: 읽기 방식이 글쓰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디지털 매체 읽기 방식은 깊이 있는 글을 쓰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추가해야겠군.
- ⑤ [자료 1]과 [자료 2]와 [자료 3]: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변화가 지속되는 뇌의 가소성을 근거로 들어, 디지털 매체 읽기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어말 어미 ‘-더-’는 ‘-었-’처럼 과거를 표현하는 데 주로 쓰인다. ‘-었-’이 단순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는 반면, ‘-더-’는 ‘새로 안 것에 대한 회상’ 정도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더-’는 특정한 인칭과 결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먼저, 무엇인가를 회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각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더-’는 원칙적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못하지만, 자신을 객관화하여 관찰할 수 있는 맥락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된다. 또한 ‘기쁘다, 슬프다’와 같은 심리 형용사에 ‘-더-’가 결합된 서술어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1인칭 주어와만 함께 쓰일 수 있다. 자신의 심리나 감각은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더-’와 어미 ‘-ㄴ-’의 결합형인 ‘-던-’은 ‘-더-’와 달리 1인칭 주어 제약이 없다. 이때의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와 함께 행위 및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를 나타낸다. ‘-던-’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특정한 시점의 행위나 상태,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던-’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더-’는 15세기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었-’이 존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형태소가 덧붙이지 않은 동사나 ‘-더-’를 통해 과거를 표현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15세기의 ‘-더-’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인칭 제약이 없었다.

또한 15세기의 ‘-더-’가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먼저 주어가 1인칭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와 ‘-더-’가 함께 쓰이면 ‘-오-’와 ‘-더-’의 융합형인 ‘-다-’가 실현되었다. 또한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선어말 어미 ‘-리-’와의 결합도 가능하였는데 이때에는 ‘-더-’의 이형태인 ‘-러-’가 ‘-리-’와 함께 쓰여 ‘-리러-’의 형태로 쓰였다. 이러한 ‘-러-’는 ‘-더-’가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할 때에도 이형태로 쓰였다. 한편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더-’가 함께 쓰일 때에는 그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35.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내가 먹은 사과’와 ‘내가 먹던 사과’는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 ② “형은 벌써 돈을 다 써 버리던데요.”보다 “형은 벌써 돈을 다 써 버렸던데요.”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죠?
 - ③ “내가 자주 놀던 놀이터가 이곳이다.”는 자연스럽고 “내가 태어나던 곳이 이곳이다.”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왜 그런 거죠?
 - ④ “그 생각에 주말 내내 나도 속상하더라.”의 주어는 1인칭이 짧아요. 이럴 때는 왜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는 거죠?
 - ⑤ ‘-더-’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고 배웠는데, “꿈을 꾸었는데 내가 하늘을 날더라.” 같은 문장은 가능해요. 왜 그런 거죠?

36.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아들들히 아버 죽다 듣고(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 듣고)
 - ㉡ 내 룡담ㅎ다라(내가 농담했다)
 - ㉢ 사르미 못 나사가리러라(사람이 못 나아가겠더라)
 - ㉣ 出家(출가)ㅎ더시니(출가하시더니)
 - ㉤ 十八億(18억)이러니(18억이었으니)

- ① ㉠에서 ‘죽다’와 같은 동사는 별도의 형태소를 덧붙이지 않고도 과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에서 주어가 1인칭 ‘나’이기 때문에 ‘-더-’가 아닌 ‘-다-’가 쓰였다.
- ③ ㉢에 쓰인 ‘-러-’는 추측의 선어말 어미 ‘-리-’와 과거 선어말 어미 ‘-더-’의 융합형이다.
- ④ ㉣에서 ‘-더-’와 ‘-시-’의 결합 순서는 현대 국어와 다르다.
- ⑤ ㉤에서 ‘-더-’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러-’의 형태로 쓰였다.

37. <보기>의 ㉠, ㉡을 모두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 것은?

<보 기>

음운 변동은 환경에 따라 음운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음운끼리 인접하는가에 따라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형태소가 결합되는가에 따라 음운 변동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형태소에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의 음운 변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 ① ‘끝이 났다.’의 ‘끝이’는 [끄치]로 발음되지만, ‘끝을 보았다.’의 ‘끝을’은 [끄틀]로 발음된다.
- ② ‘꽃이 피었다.’의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지만, ‘꽃잎도 떨어지다.’의 ‘꽃잎’은 [꼐닙]으로 발음된다.
- ③ ‘곧이 알아듣다.’의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지만, ‘곧이어 도착했다.’의 ‘곧이어’는 [고디어]로 발음된다.
- ④ ‘뜻있게 보내다.’의 ‘뜻있게’는 [뜨딤께]로 발음되지만, ‘그 말은 뜻이 좋다.’의 ‘뜻이’는 [뜨시]로 발음된다.
- ⑤ ‘값있어 보인다.’의 ‘값있어’는 [가비써]로 발음되지만, ‘그 값이랑 차이가 없다.’의 ‘값이랑’은 [갑씨랑]으로 발음된다.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놀이터와 ‘잠꾸러기’는 둘 다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자는 합성어이고 후자는 파생어이다. ‘놀이터’는 ‘(놀--+이)+터’로 분석되어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반면 ‘잠꾸러기’는 ‘(자--+口)+--꾸러기’로 분석되어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형성된 어근에 또 다른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① ㉠: 튀김옷
- ② ㉠: 비빔밥
- ③ ㉠: 뜨개질
- ④ ㉡: 싸움꾼
- ⑤ ㉡: 헛웃음

3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명사 중에는 한 문장 안에서 앞서 나온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재귀 대명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에 쓰인 ‘자기’는 앞서 나온 체언인 ‘철수’를 다시 나타내기 위해 쓰인 재귀 대명사이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재귀 대명사와 일반적인 대명사 둘 다로 쓰이는 것들도 있어서 문맥을 고려하여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서 <u>저</u>도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 소년은 <u>저</u>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님께서 <u>저희</u>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 동생들은 내가 <u>저희</u> 때문에 밥을 차린 줄 안다.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u>너희</u>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 누나가 <u>너희</u>는 모두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보, 언제나 <u>당신</u>의 말에 귀를 기울일게요. •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u>당신</u>의 장서를 아끼셨다.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유리창을 깨 사람은 <u>제가</u> 아닙니다. • 그 꼬마는 <u>제가</u>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여쭙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초의 읽는 행위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音讀)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기록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음독은 당시 문장의 특색 때문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파피루스 나무나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형 텍스트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 간격이나 구두점 없이 계속 쓰는 연속 기법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독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독서는 혼자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회적 모임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두루마리형 텍스트는 2세기 이후 값싼 종이로 된 ㉡책자형 텍스트로 바뀌었으며 책자형 텍스트가 두루마리형 텍스트를 완전히 대체한 12세기 무렵에는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默讀)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낮추어 읽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묵독이 시작되자 글이 ‘기록된’ 말이 아니라 시각화한 언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책자형 텍스트는 참조와 재독을 쉽게 하고 명상적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 사이의 간격, 문단의 변화를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문장 부호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독서가 혼자 하는 일이 되면서 개인의 내밀한 체험을 기록한 책도 속속 등장했다.

목독은 주로 제한된 텍스트를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였다. 15세기 파리 소르본 대학의 10년간의 도서 대출부 기록을 보면 우등생들이 읽은 책 목록이 성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언집과 주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과 그 주석에 국한되어 있다. 제한된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읽는 독서법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중반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점차 산업화하면서 서서히 제2의 독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책 생산이 이전의 3, 4배로 증가한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다독하는 분산형 독서로 바뀐다. 분산형 독서란 필독 목록인 정전(正典)에서 벗어나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형 독서가 되면서 이전에 독서를 하지 않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20세기 후반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혁명을 통해 검색형 독서가 극대화되면서 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검색형 독서에서 독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도 된다. 인터넷 등과 결부된 **㉔디지털형 텍스트**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서 수정하고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형 텍스트는 소리를 의식한 텍스트,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글쓰기, 기존의 문자에서 배제되었던 음성과 표정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기한 이모티콘 등의 사용, 정보를 그물망 구조로 연결시켜 주는 하이퍼텍스트*와 전체 영역 중에서 창에 나타난 부분을 알려 주는 스크롤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문자를 소리로 들려주는 방식 등 새로운 독서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저장 또한 전자 형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사용자에게 비순차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텍스트. 문서 속의 특정 자료가 다른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 서로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스크롤바(scroll bar): 윈도우(window)에 그림이나 문자를 출력할 경우, 윈도우에 나타난 화면을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막대. 전체 영역 중에서 창에 나타난 부분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며 보통 윈도우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나타난다.

40.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텍스트의 유형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다.
- ②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
- ③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
- ④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유통하려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수용하는 자의 수가 변화될 수 있다.

41.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에 비해 ㉔은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이 음독보다는 목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㉑에 비해 ㉔을 활용한 정보 수용자는 비순차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㉔에 비해 ㉔은 정보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언어가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㉔에 비해 ㉑을 활용한 정보 수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⑤ ㉔에 비해 ㉑과 ㉔을 활용한 정보 수용자는 읽고 있는 텍스트의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디지털형 텍스트'를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디지털형 텍스트를 비롯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는 네트워크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보가 그물망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읽는 독자들은 자율권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에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처음에 수집하고자 했던 정보 대신에 다른 정보를 찾아다니는 방향감 상실 상태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많이 수집된 정보를 선별·조직하지 못해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 ① 디지털형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집중형 독서는, 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정보를 많이 획득하게 하여 독자가 인지 부조화 상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겠군.
- ② 디지털형 텍스트의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독자가 정보를 찾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정보의 배열 방식으로 인해 엉뚱한 정보를 찾아다니게 할 수도 있겠군.
- ③ 디지털형 텍스트의 스크롤바의 기능은, 텍스트의 전체 영역 중의 일부분만을 노출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로부터 빼앗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
- ④ 디지털형 텍스트를 읽을 때 검색형 독서를 사용하는 방식은, 잘못된 정보가 추가되거나 정보의 일부가 잘리게 되는 정보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
- ⑤ 디지털형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기한 이모티콘이나 문자를 소리로 들려주는 방식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독자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

[43~44]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포스터와 동영상의 스토리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휴대 전화 메시지

조 모임 대화방 (4명)

승호: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를 발표하기로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경수: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원하는 바는, 자신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래. 이로 볼 때 장애로 인해 장애인의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 그러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정하면 어떨까?

재민: 그거 좋겠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예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이야.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에 광고에 사용할 매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승호: 예인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메시지는 경수가 말한 것으로 하고, 광고 매체를 정해 보자.

경수: 난 광고는 수용자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수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정보의 제공 속도도 빨라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정보가 순차적으로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포스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재민: 좋은데. 그러면 포스터 내용으로 장애인의 휠체어를 종이로 접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접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자는 글귀를 넣자.

예인: 동영상도 고려해 보았으면 해. 동영상은 포스터에 비해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다 보니 정보의 제공 속도가 느리기는 해. 하지만 음성, 음향, 영상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스터에 비해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또 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승호: 의견이 갈리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경수와 재민이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나와 예인이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자. 그런 다음에 둘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떨까?

경수: 좋아. ^^

재민: 나도 좋아~

예인: 나도 찬성. ㅎㅎ

(나) 1.



2. 제목 : 편견을 버리면 그들도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p>(영상)</p> <p>#1. 아무것도 없는 흰 바탕에 장애인 표시가 있다.</p>	<p>(음성)</p> <p>#6. 다시 엄지가 사라지고 흰 바탕에 장애인 표시만 남는다.</p>	<p>(영상)</p> <p>#8.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나온다.</p>	<p>(음성)</p> <p>#7. 엄지를 든 손이 내려오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 장인의 모습이 보인다.</p> <p>"우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p>
<p>#2. 엄지를 든 손이 내려오면서 휠체어를 기린다.</p>	<p>#3. 엄지가 휠체어를 가리고 이젤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장인의 모습이 보인다.</p> <p>"우아, 정말 잘 그리신다!"</p>	<p>#9. 장애인이라는 글씨에 엄지를 든 손이 내려오면서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장인'이 된다.</p> <p>"편견을 버리면 그들도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p>	<p>#5. 엄지를 든 손이 내려오면서 초밥을 만드는 초밥 장인의 모습이 보인다.</p> <p>"우아, 정말 맛있어요!"</p>

4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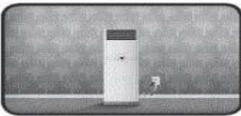
- ① (나)-1은 (나)-2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동영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나)-2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동영상은 (나)-1에 비해 정보의 제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③ (나)-2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동영상은 (나)-1에 비해 순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④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매체 자료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매체 언어가 동일할 것이다.
- ⑤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매체 자료는 제재를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다를 것이다.

44. 다음은 (나)-2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나)-2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제목	(가)에서 합의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예상 관객	대한민국 국민 전체
예상 제작 시간	30초
화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에 장애인 표시의 그림만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 장애라고 인식되는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가리고 장애인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장애인도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장애인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열거하여 보여 준다.㉣ • 손 모양과 '장애인'의 글자를 활용하여 장애인이 장인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의 공익 광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상, 자막>	<음향, 음성>
① <영상> 전구의 불을 끄자 	<음향> 탁! (전등 스위치 끄는 소리) <음성> 밝은
② <영상> 아름다운 달빛의 바닷가 야경으로 바뀐다. 	<음향> 씹아아~ (고요한 바닷소리) <음성> 어두워야 밝습니다.
③ <영상> 돌아가던 에어컨이 꺼지자 	<음향> 띠리링~ (에어컨 끄는 소리) <음성> 여름은
④ <영상> 매미 소리 울리는 한여름, 원두막에 어린아이들이 올라간다. 	<음향> 맴맴~ (매미 소리) <음성> 더워야 여름입니다.
⑤ <영상> 돌아가던 보일러를 끄는 손이 	<음향> 툭! (보일러 끄는 소리) <음성> 겨울은
⑥ <영상> 눈사람을 만지는 손으로 바뀐다. 	<음향> 하하하~ (눈사람을 만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음성> 추워야 겨울입니다.
⑦ <자막> 지구의 원래 모습을 즐길 때 지구의 원래 온도가 돌아옵니다. 	

- ① 1, 3, 5의 <음성>에서는 체언 뒤에 보조사를 결합하여 만든 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2, 4, 6의 <음성>에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를 통해 앞 절이 뒤 절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1~6에서는 <영상>에 어울리는 <음향>을 함께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 ④ 7에서는 <자막> 중 일부를 굵은 글꼴로 부각하여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는 '여름', 6은 '겨울'의 계절적 배경을 <영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주제가 반전됨을 나타내고 있다.

